

주간기도정보

2023. 12. 1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대림절,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참된 영성 회복되길

살롬나비, 2023 대림절 메시지 발표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은 13일 ‘2023 대림절 메시지’에서 “대림절은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전 4번의 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며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리고 재림을 대망하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다.

이어 “대림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세우는 계기로 삼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날 인본주의와 과학 기술주의로 인한 무신론적 세속주의와 낙관주의는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내세적이고 초월적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살롬나비는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 갈수록 흐려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림절을 통해 종말을 사는 기독 신자의 참된 영성을 회복하도록 힘쓰자”며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신자들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연합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대림절을 회개와 용서를 실천하고 세상을 위한 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계기로 삼자”며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심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한다(빌 2:5-8)”고 했다.

살롬나비는 “대림절에 북녘땅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자”며 “북한에는 동포들이 압제 정권에 의해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폐쇄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해방이 이들에게 오기를 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퇴각하기를 기도 한다. 중동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 지역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 한다”고 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그네 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자”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등과 같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베드로후서 3:11-13)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하나님, 죄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온 땅에 선포합니다!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분위기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성탄절을 통해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대림절을 지나며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북한과 전쟁 중에 있는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나의 공의와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청년 수천 명, 맨몸으로 방사능에 피폭 사망
탈북민 강철환 대표, 화성수용소 인권 유린 실태 고발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몰린 청년 수감자들이 핵실험 지하갱도에 맨몸으로 투입돼 방사능에 피폭되는 인권 유린을 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복송을 통해 본 북한 인권 실태와 대책’ 국회 포럼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한 탈북민 출신 강철환 대표(북한전략센터)는 1959년 개설된 화성수용소에 대해 밝혔다.

강 대표에 따르면, 1994년 북한 승호리 수용소가 해체된 이후 그곳의 1급 정치범 또는 가족들이 대거 화성수용소로 옮겨졌고, 2018년 요덕수용소가 해체되면서 그 생존자 대부분도 이곳으로 옮겨졌다. 그는 10만 명 수용 규모의 북한 최대 수용소

인 화성수용소에 대해 “생존 조건도 북한에 존재한 다른 수용소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했다.

고산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2006년 첫 핵실험이 만탑산 부분에서 진행되면서 실태가 알려졌다. 강 대표는 “핵실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발파를 피하고 순전히 인력으로 지하갱도 작업을 해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며 “방사능 범벅인 현장에서 지하갱도 작업을 진행하면 바로 피폭돼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고 노동력은 급격히 상실된다”고 했다.

회령수용소(22호) 경비병 출신 탈북자인 안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화성과 회령수용소에서 2, 3천 명 수준의 청년 정치범들이 만탑산으로 이동했지만 돌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핵실험 이후에서야 그 의문이 풀렸다고 그는 밝혔다.

한국 정부가 풍계리 등 길주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방사능 측정을 한 결과, 엄청난 피폭량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 반경인 양강도와 함경도 지역 대부분이 방사능에 덮였을 가능성이 크며, 지하수가 연결됐을 가능성도 커서 광범위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핵실험 영향을 화성수용소 쪽으로 돌려나 수용소에서의 인명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 대표는 덧붙였다.

김 대표는 “북한 김씨 왕조의 핵실험은 좁은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 사실상 재앙적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 특히 방사성 물질 피폭 현장에서 6차에 걸친 핵실험 과정에 수만 명의 정치범을 들이밀어 지하갱도 작업을 시킨 것은 야만적 집단 살인”이라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이사야 46:13)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린도전서 15:54-56)

하나님, 정치범수용소에서 핵실험과 강도 높은 노동 아래 무참히 짓밟히며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에 놓인 북한의 수감자들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는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국제사회의 도움과 상호작용을 거부한 채 위험한 핵무기를 고집하는 김정은 정권을 꾸짖으시고, 핵 개발 계획을 무너뜨리사 주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사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가장 비참한 이곳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외치며 구원의 승리를 붙든 자들이 일어나고, 북한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노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최초

한국 교계, 그동안 “지나친 동성애 옹호 등 편향된 인권 담겼다”며 반대해 와



지난 15일 전국서 처음으로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와 교계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고 조례 시행을 반대해 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게 해 편향된 이념 아래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 노릇을 하게 한다는 점,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부각한 채 필요한 책임과 한계는 외면하고 있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실제 수업 중 영상 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뺨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교사, 빗자루 등으로 교사를 폭행한 학생 등의 사례가 발생했고, 매일 수업 중 떠들기, 잠자기, 휴대전화 보기, 교실 이탈, 폭언, 폭행 등의 학생문제를 겪고 있다는 교사들의 호소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동성애 옹호를 넘어 동성애를 조장한다. 성 문제와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과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동성애에 관한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막고, 그저 인권과 자유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용인하는 교육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는 “성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 등을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고 보는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교육이 가능해지니 문제”라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걸릴까 우려해 예방 교육을 받기 원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조항 개정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수라고 반박했고, 표결 끝에 폐지가 가결됐다.

이번 결과가 현재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돼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폐지안 통과에 따라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 이를 전달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누차 밝혀 왔던 충남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할 경우 도의회에서 다시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같은 의결이 나오면 확정되지만, 교육감은 재의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종합).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한1서 4:4-6)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이사야 8:10)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며 싸워왔던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충남지역에서 통과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이 일을 주장하사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다음세대를 미혹해 방탕에 방임하게 하고, 잘못된 성이념과 가치관으로 생각을 노략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의 악한 계획이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모세대와 교회가 자녀들을 가르쳐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세대로 자라나도록 진리로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다음세대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이 일을 막아서는 교회가 끝내 주님의 뜻만이 굳게 설 것을 믿고 기도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